

나경원 “文, 김정은 수석대변인”...국회 아수라장

與 의원들 “사과해” 고성...일부 본회의장 퇴장
한국당 지도부도 나서 호응·항의·삿대질 다툼
문희상 “논란 발언 했지만 최종 판단 국민들이”
나경원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 불쾌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오는 등 아수라장이 되면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30여분간 중단됐다. 나 원내대표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하면서다.
이날 10시10분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시작부터 박수와 야유가 뒤섞이며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실정 지적에 “맞다” “잘한다”라고 외치거나 손뼉을 치며 호응했고, 여당 의원들은 “불타기 한다” “여보세요”라고 소리치며 맞섰다.
특히 10시22분께 일제히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안보 불안을 지적하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할 말 안

할 말 구분도 못하느냐” 등을 외치며 강력 항의했고 상당수 의원이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으로 올라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도 “경정하라”고 외치며 맞섰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홍 원내대표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고성으로 삿대질을 하며 단상에서 다툼을 벌였다.
이제야 한국당 의원은 일어서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까이 가 항의하며 착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소리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뛰는 겁니까, 질서를 지키세요”라고 소리쳤다.
홍 원내대표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니! 이따위 이야기를 하느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질여 나와 홍 원내대표와 삿대질을 하며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경원 원내

대표에게 “계속 발언을 이어가라”고 거듭 말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다함께 “사과해”를 연신 외치는 등 소란이 이어져 나 원내대표는 발언을 이어가지 못했다.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민주당 의원들을 자제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야유는 계속됐다.
나 원내대표는 고성과 야유가 계속 이어지자 “나가서 마음껏 하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여러분의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로 30여분 이어지던 소란이 겨우 진정되며 나 원내대표는 연설을 이어갔다.
문 의장은 “내가 보기엔 상당히 논란의 발언을 하셨다”면서도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한다.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게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종적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는 것이다. 청와대 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의장도 참았다”라며 지난해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일부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 생각되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문정민 “北 김정은 서울 답방 어려워...줄게없다”
“평양 선물 없으면 부담될 것”

문정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동도론회에서 “현 단계에서 쉽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려고 하면 돌아갈 때 가져가 할 텐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서울 답방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국명 국복을 위해서 지난해 5월에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관동도론회 같은 데서 비공식 회동을 할 수 있겠다”면서도 “서울 답방은 쉽지 않아보인다”고 재차 언급했다.
문 특보는 “서울 답방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했지만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며 ‘가장 눈에 보이는 방안은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가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서 평양에 선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오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시기에 대해서는 “7월 정도에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적 여유를 두고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는 건데 모르겠다”며 “하노이 결렬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두고 봐야 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재춘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났다고 하니 두고봐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보다 북중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면 북미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지 두고 봐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與, 긴급 의원총회 나경원 성토포...“원내대표직 사퇴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성토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원수 모독죄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 사퇴 요구, 한국당 의 야당과 연대 제안 등도 나왔다.
이 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지난번 한국당 3명의 의원들이 5·18 망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데 이어
이해한 “대한민국 국가 원수 모독...즉각 윤리위 회부”
홍영표 “용납 못할 망언...발언 취소하고 국민에 사과”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분노도 생기고 답답하기도 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건 도를 넘은 것을 떠나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었다”며 다시 한 번 공식적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집안에서 국가원수를 모욕한 전례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 원내대표는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존재를 부정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원내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 국회에서 협상은 무의미하다.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의원은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정한다”며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서 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국회를 검토해서 속기록에서 나 원내대표의 잘못된 발언을 삭제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